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신 태 운 원장의
치아 건강

건강은 아무리 타고나는 거라지만 치아만큼은 노화에 있어 예외일 수 없다. 구두를 오래 신으면 굽이 닳아버리듯이 치아도 오래 사용하면 마모되기 때문이다.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의 경우 치아가 거의 없는 무치악 상태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반 틀니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노년층의 임플란트 치료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 최근 틀니 대신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노년층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

세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임플란트를 할 경우 환자의 경제적·신체적·시간적 부담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임플란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는 윗니에 5~7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아래쪽에는 4~6개의 임플란트만을 심은 후 이를 이용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해 주는 것으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덜해 노년층 환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치료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력과 심미적인 효과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고,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면서 심미적으로도 기존 틀니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치료법은 틀니처럼 입속에 탈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임전장을 덮어 이물감이 느껴지는 등의 불편함이 전혀 없

으며, 뼈 이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덜하다.

단, 이렇게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하려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 시술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CT 촬영과 더불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밀 가이드 시술법이 병행되어야만 보다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은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수술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병원 선택 전 수술집도의가 임플란트 시술 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 의인지, 정밀검사에 필요한 첨단 의료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 의료기관인지 꼼꼼히 살펴본 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치과전문인민을신치과 원장



호반그룹, 신입사원 첫 봉사활동

호반그룹의 2018년 공채 신입사원이 첫 공식 활동을 실시했다. 호반그룹 신입사원들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KB증권 연수원에서 '희망'캠페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관리직, 현장기술직 등 2018년 신입사원 65명이 참여했다. 신입사원들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티셔츠에 희망의 그림, 메시지 등을 직접 그려 넣었다. 완성된 120여장의 희망 티셔츠는 기후난민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호반그룹



신한은행, 미래 경영인 성장 지원 MIP 10기 수료식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서울 역삼동 소재 신한아트홀에서 신한 MIP(Management Innovation Program For Next CEO) 10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 MIP는 중소·중견기업 2세 경영인과 청년 기업가를 대상으로 경제·경영 및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2009년 1기 25명을 시작으로 올해 10기까지 총 34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신한은행

거꾸로 가는 文정부 교육정책



기지 수첩
한 용 수
(정책사회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취약한 분야를 꼽자면 단연 교육이다. 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면서 높은 국정수행 지지를 받고 있다. 교육분야가 유일하게 발목을 잡는다. 이 가운데 대입 제도 개편과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역대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대입 제도 개편의 경우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대입 제도를 바꾸기로 했으나 1년 유예해 2022학년도 개편으로 늦췄다. 지난해 정권을 잡은지 약 3개월 만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졌으나,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대입 개편은 논란이 크고 불투명하다. 학생 혼란과 불편은 최고조에 달했다. 대입 제도를 '단순하고 공정하게' 바꾸겠다는 정책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당장 현재 중학교 3

학년 학생 이후로는 대입에 대해 손을 놓았거나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까지 국내 다수 대학들이 이 평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국내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호성 회장(단국대 총장)은 지난 29일 129개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과정 속에서 2단계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에 송구함을 전하고, 자율개선대학의 비중을 좀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학 평가에 대한 대학 사회의 우려를 전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대교협은 이날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조사와 연구를 담은 발제문을 통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문제를 조목 조목 비판했다. 김창수 고등교육미래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발제문을 보면,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비교해 대학에 대한 진단과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전히 획일적인 평가를 통한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대학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가로막는다고 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3%가 "정부 주도의 평가가 필요없다"는 결과를 인용하면서 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이러면서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김상곤 교육부장관 교체설도 정부 내외부에서 흘러나온다. 후임 자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과 기자 출신 정치인 박영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교체 시기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는 8월 이후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이 찬성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취지가 정당하다면 묵심있게 밀고 나가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두 정책만 놓고 봐도 현 교육당국은 이런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 특히 교육정책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진로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정치적 계산없는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시급해 보인다.

/hys@metroseoul.co.kr

인사

- ◆국세청 ◇고위공무원 기급 △국세청 차장 이은향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현준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대지 ◇고위공무원 나급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형환 △기획조정관 강민수 △전산정보관리관 정철우 △감사관 김창기 △개인납세국장 권순박 △조사국장 김명준 △소득지원국장 박석현 △서울청 조사1국장 임광현 △서울청 조사2국장 한재연 △서울청 조사4국장 임성빈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동일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정목 △중부청 조사4국장 이철룡
- ◆국도교통부 ◇국장급 전보 △종합교통정책관

박무익 △항공정책관 진현한

◆신한은행 ◇부서장 이동 △외국인투자사업부장 장기원 △투자금융부장 장호식 △글로벌사업본부 팀장(부서장대우) 이동호 △글로벌사업본부 팀장(부서장대우) 윤기성 △감사부 부장감사역(부서장대우) 조성환 △한남동 금융센터 리테일 지점장 공경택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수경 △태백지점장 김재건 △여의도 대기업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RM 우한상 △글로벌사업본부 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조정훈

부음

▲이종연씨 별세, 김현태(한국원양산업협회 이사)씨 모친상, 김현열(서울 강동성심병원 전공의)씨 조모상 = 4일 오후 9시,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 10빈소, 발인 7일 오전 7시 40분, 051-790-5070
▲안용기씨(브릿지경제 종합편집부장) 모친상 = 5일 오전 6시,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공주시 정안수목장, 043-269-7213
▲박노정(시인)씨 별세 = 4일 오후 7시, 전주 경성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7일 오전 7시, 055-750-8448

NS홈쇼핑

소외층 복지기금 마련 사랑나눔 바자회 진행

NS홈쇼핑은 6~7일 판교에 위치한 NS홈쇼핑 별관 1층 광장에서 'NS홈쇼핑 사랑나눔 바자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랑나눔 바자회'는 NS홈쇼핑이 2017년부터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해 온 행사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NS홈쇼핑의 중소기업 협력사 상품 110여개 품목을 직매입하여 최대 59%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TS삼푸세트'(1만7000원), '중근당 락토티 생유산균'(9000원), '해피콜양면팬'(3만원) 등을 특가로 판매하며, 수익금은 전액 성남시 가정 위탁 아동 및 사회 복지 시설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전달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중기유통센터, 협력재단과 중소기업 판로지원협약

중기유통센터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자율적 상생협업을 통해 중기유통센터가 구축한 동반성장물 활성화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유통센터 임득문 대표와 대중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왼쪽 네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유통센터



부영그룹, 화성 향남서 부모교육 개최

부영그룹이 지난 3일 경기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 향남 지역연계 부모교육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부영그룹이 주최하고 화성향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8지역회 후원으로 열렸다. 강연에는 학부모 200여명이 발걸음 했다. 강연은 이기숙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부모의 공감대 화법과 양육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부영그룹

농식품부 '2018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시작된 귀농·귀촌박람회는 올해 귀농·귀촌 인구 50만명 시대를 맞아 청년과 여성, 농업의 미래 비

전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올해는 단순 정보제공과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의 행사를 지양하고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협력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보와 상담 등에 중점을 뒀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 9826
독자센터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86호